

작품 내용

제 목	빈칸
내 용	나의 하루가 빈칸이 되었다 만약 그렇게 되버린다면 나의 작은 그림자가 등지로 가까워질 때에 그를 씩씩히 위로하던 너 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것 같았던 속삭임까지 모두 달아나 그저 하얀 고요 속으로 남겨진다면 그 빈칸에서 분명 외로워진 나 오선도 원고지도 여백으로 변해 여느 소리도 모두 속속 사라질 것이라면 나는 화들짝 깨어나 비로소 아끼고 싶은 것들로 다시 채워버리고만 싶어질거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는 나의 공간에 붙어온 넉넉했던 위로들은 촌각의 더미에서 영접을 지나 쫓겨난 의자-창문 너머 누군가의 골몰한 사색, 기꺼이 낳아놓은 것의 귀한 흔적이었음을. 내가 매일 조용히 채우고 누린 그 허락된 기쁨들 고마워요. 모두 덕분이었어. 그 귀한 위로에서 비로소 채워지는 나의 빈칸